



보건의료정보화 전담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

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

보건의료정보표준화

보건의료용어표준

개요

-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게 표현되는 용어들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지원할 수 있는 용어체계
- 보건의료분야의 포괄적인 기초데이터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용어 등의 집합

<보건의료용어표준 분야>

진단	의료 행위	임상 검사	방사선 의학	치과	보건	간호	한의학	기타
진료용 그림		국가 건강검진 문진표			WHO 기능장애 평가도구			

기대효과

- 표준의 부재로 호환이 불가했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보장
- 한글 지원 및 의료현장용어 반영으로 국내 의료기관 활용에 적합한 용어체계 개발
- 표준화된 임상 정보 기록으로 환자 진료 및 의료정보의 질 향상

FHIR(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)

개요

- 의료환경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리소스(Resource)라는 기본단위를 사용하여 의료정보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전자 의료정보 교환표준

필요성

-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(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)을 의료에 접목하면서 의료 데이터의 범위 확장으로 국가적 기술 대응 필요

활용

- 진료정보교류와 같은 의료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기술이 필요하거나, 임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술에 적용하여 의료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데 활용

기대효과

- 국가적 상호운용성 표준 확립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·제도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
- 다양한 기술발전 요인과 접목한 의료데이터 활용 인프라 형성 촉진 및 신사업 창출에 기여

WHO-FIC(World Health Organization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) 한국협력센터

개요

- WHO 국제분류체계(ICD, ICF, ICHI)의 개발·개정·보급을 위해 21개국에 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, 한국은 2012년 12월 최초 지정
-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WHO-FIC 한국협력센터 업무 공동수행

관련분류체계

- 국제 1차 진료분류체계(ICPC)
- 국제 상해외인 분류체계(ICCE)
- 약물분류기준(ATC)
- 장애인에 대한 기술적인 보조·분류체계 및 용어체계(ISO9999)
- 국제간호실무체계(ICNP)

참조분류체계

- 국제질병사인분류(ICD)
-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(ICF)
- 국제건강행위분류(ICHI)

파생분류체계

- 종양학 국제질병분류체계 3판(ICD-O-3)
- 정신행동장애 국제질병분류체계 (The ICD-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)
- 치과 및 구강학 국제질병분류체계(ICD-DA)
- 신경학 국제질병분류체계(ICD-10-NA)
- 신소아청소년 국제장애분류체계(ICF-CY)

주요업무

- WHO 국제분류체계의 개발·개정에 국가 의견제시 및 국제협력
- WHO 국제분류체계의 국내 보급 및 교육
- 보건의료정보표준 관련 국내·외 자료수집 및 조사

GDHP(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)

개요

-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헬스 분야 선도국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협의체 ※현재 한국 포함 30개국과 WHO가 참여 중

협력분야

분과	주용내용
상호운용성	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 관련 해결할 문제점, 정보화 청사진 제시 (표준, 정책, 규제 등)
사이버보안	안전한 의료정보 생성과 제공을 위한 사이버보안 운용 경험 공유 및 협업 (국제적 보안 표준화)
정책 환경	디지털 헬스의 혁신과 개발 자원을 위한 정부 역할, 건강정보 데이터 생성 및 활용, 공유 과정의 문제 해결 정책 제시
근거 및 평가	다차원적 평가(사회적, 임상적, 기술적 등)가 가능하도록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, 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에 대한 허용 및 합의 도출
의료인과 소비자의 참여	의료정보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자와 의료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전략 제시

기대효과

- 국제 동향과 연계한 국내 디지털헬스 정책 수립 지원
- 해외 디지털헬스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디지털헬스 분야의 역량 강화